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에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동문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제19회 우승 **용마골프** 기별야구 **왕중왕 D-5**

제20회 준우승·MVP 서부원 (18회) 차지

본부 제8회 용마골프대회

제19회가 퍼팅 8년 만에 숙원의 챔피언십 컵을 쟁취, 초원 평정의 왕좌에 올랐다.

지난 10월17일 부산C.C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제8회 회장배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 단체전에서 제19회(선수:오재호 74타·이춘만 78타·허홍욱 78타)는 맹렬히 추격해 온 바로 아래 20회(선수:이수호 73타·강석근 78타·장상배 80타)를 단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감격을 누렸다. '03년 우승팀인 제26회(선수:김성관 76타·김두천 77타·박흥기 80타)는 준우승한 제20회에 2타차로 밀려 3위에 그쳤다.

이날 개인전 MVP는 서부원 (18회·뉴페리얼방식·82타·-3), 메달리스트는 이수호 동문



(20회·73타)이 차지했다. 시니어부 우승은 안강태(11회), 메달리스트는 이상준 동문(9회), 여성부 우승은 문성애(20회 장영훈 동문 부인)·메달리스트는 안영자 씨(14회 박용화 동문 부인)가 각각 차지했다(각 부별 입상자 등 관련기사 2면에).

본부 주최 제8회 기별대항 용마골프(05.10.17) 단체전에서 우승한 제19회 동문들이 안강태 본부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선 조선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오전 9시30분 180명의 선수들이 46개조로 나뉘 인-아웃 코스에서 동시에 티업, 추색 짙은 초원에서 기량을 뽐냈다. 한편 오전 11시 아웃코스 1번에서 본부 고문·회장·자문위원·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타식이 펼쳐졌다.

원·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타식이 펼쳐졌다.

오후 5시30분 박병선 대회운영위원장(14회·본부 부회장·용마골프회장)의 개회선언으로 거행된 시상식 겸 단합회는 허홍욱 동문(19회·용마·평마골프회 총무)의 사회에 따라 우승배 반납(전년 대회 우승 제13회)·안강태 본부 회장 대회사·박병선 대

회운영위원장 격려사·정행권 고문(9회) 축사·협찬금·시상품 기증자 발표·제11회동기회 특찬금 전달·부산C.C 도우미 기념품(50점·한성참치 선물세트) 전달·행운상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운대상(골프가방·의류가방: 22회 유재진 동문 기증)은 이천규(20회) 변대석(22회) 김경환(40회)이 차지했다.

이봉희 동문 (32회) 국제프로젝트 총책임자 발탁 ‘한국의 즐기세포 세계주도’ 위상정립



국내에서 의대 교수로 활약 중인 한 젊은 용마가 신경줄기세포의 특성·안정성을 평가하는 대규모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선정돼 ‘한국의 즐기세포 종주국으로 세계를 주도’ 할 전기를 마련했다.

주인공은 제주대학교 의대 의학과 교수인 이봉희 동문(32회·해부학박사·사진). 그의 이 같은 위상은 한국의 자존심은 물론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 선양과 국내외 용마가족들의 자긍심을 드높여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이 동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해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경상대 의대 부교수를 역임했다. 인간 프로테옴 프로젝트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난치병 환자에게 신경줄기세포를 적용하기 앞서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단백질체를 규명, 국제공인을 통해 세계에 공표하는 임무이다.

이 동문의 역할은 국내에 곧 설립될 세계줄기세포은행을 비롯해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의 즐기세포 생산기술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신경줄기세포 분야의 세계 표준을 결정하는 열쇠’로써 위상 정립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인간유전자지도’를 만드는 것이라면, 인간 프로테옴 프로젝트는 ‘인간단백질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이 동문은 이 중 신경줄기세포의 단백질체를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으로 10년간 연구비만 500억~1천억 원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안에 설립된 인간프로테옴기구(HUPO)의 인간 뇌 프로테옴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다.

제28 - 35회 패권쟁탈 ‘초읽기’

제37회 본부회장기 기별야구

“대망의 황금용마기가 우리에게 미소를 띄운다!”

오는 11월5일 경남고구장에서 펼쳐질 본부 주최 제37회 회장기 기별대항 야구대회(05부산시리즈·주관 경야회)가 결승전에서 다크호스 제28회와 대회 ‘최강’으로 회자되어 온 제35회가 한 판 승부를 벌인다(관련기사 2면에).

지난 10월30일 경남고구장에서 열린 대회 4강전 마지막 경기(12:00)에서 제35회는 작년 대회 우승팀으로 대회 2관왕을 꿈꾸던 제39회를 8-3으로 이겨 결승행 막차를 타는 데 성공했다.

앞서 4강전 첫 경기(10:00)에서는 제28회가 바로 위 선배인 제27회를 10-7로 따돌렸다. 앞서 29일 경남중·고구장에서



지난10월29일 경남고구장에서 열린 기별대항야구대회 8강전에서 제28회가 제35회를 맞아 공격하고 있다. 이날 제28회가 21-11로 승리했다. 작은 사진(오른쪽 아래): 조광재(28회)선수가 홈런상을 받고 있다.

8강전을 펼쳤다. 이날 경남고구장에서 제28회는 제33회를 21-11, 제27회는 제24회를 12-1, 경남중에서 제35회는 제44회를 16-10, 제39회는 제40회를 13-8로 각각 이겼다.

제19회 8년만의 왕중왕

“용마가족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장배
제8회
용마골프대회

제19회동기회

회장 이기주
총무 박성규

일구회 (제19회 골프클럽)

회장 석무관
총무 신상건
회원 김봉호 박동화 박종화 성낙출 성환진
안경환 오재호 이성달 이창현 이춘만
장흥의 허홍욱 황태원

시 평



임태영

제40회 회장 ·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모교를 떠난 지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불혹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 봄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자문을 받았다. 동창회(동기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을 할 때가 많다. 동문 각자가 자발적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같은 목적과 사명감에 응집한 조직은 기반이 튼튼하고 유대감이 강하다. 그러나, 단순히 '경고졸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직에 가입하여 무관심으로 치닫는 경우는 조직관리가 여간 힘들지 않다.

모두들 용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이다. 동창회와 같은 이해(利害)관계가 원초적으로 전제되지 않은 조직은 그 구성원이 본인의 의사에 앞서 조건 없이 참여하고 성원할 때 활성화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소극적이거나 냉소적인 구성원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설득하여 동참하게 하여야 한다. 졸업 후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을 한 번 뒤돌아 봐야 한다.

우리 제40동기회는 매월 4일(휴일인 경우 앞 뒤로 조정)에 모임을 가지고 있다. 거의 매번 졸업 후 처음 보는 동기생을 만나게 된다. 아련한 학창시절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려 이야기꽃을 피우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 일상에 찌든 피로한 심신이 말끔히 씻어진다.

지속적 교류는 조직강화 촉매제

동창회는 이 같이 구성원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생활에 중요한 활력소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조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창회는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구심력을 지니고 있다.

동창회라는 조직도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동문 상호 간에 빈번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없이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각자 친한 동문들 간에는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동창회라는 수면으로 나서기는 다소 꺼리는 동문들이 많다. 이젠 이러한 동문들이 수면 위로 나서야 한다.

동창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런 동문들은 항상 마음속 구석에 남아 있는 학창시절에 대한 아련한 빈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하리라 생각한다. 학창시절의 성적은 상관없다. 특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보고 싶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자.

홈커밍데이 행사는 용마의 저력과 단결을 바탕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사이다. 내년에 있을 제40회의 홈커밍데이 행사는 겸손하면서도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동문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성공적인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제33회 '최다참가' 2관왕

본부 기별야구 입장식 성황... 가족 릴레이 · 발야구도

연합B팀 우승... MVP 최충락(14회)

본부 주최 제37회 기별 야구대회 입장식이 지난 10월9일 오전 10시 경남고구장에서 거행됐다.

안강태 본부 회장(11회 · 대선조선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입장식에는 정소영 고문(6회)을 비롯해 권명미 경고 교장 · 이길상 경야회 고문(6회 · 동기회장) · 이용규 경야회회장(22회) 등 동문 · 가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안강태 회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동창회의 자존심인 이 대회가 경야회 주관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원에 힘입어 모교 야구의 중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식은 국민의례 교가제창 우승기반납(작년 대회 제39회 우승) 회장인사 모교교장환영사 선수대표선서(이상조 · 39회) 참가상시상(▷1위 33회-40명 ▷2위 6회-39명 ▷3위 32회-32명 ▷4위

14회-27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입장식분위기를 달구기 위해 동문 부인 대항 릴레이와 발야구를 펼쳤다.

입장식 후 장타대회(10회 서정철 등 20명 참가)에 이은 연합팀 경기는 B팀이 A팀을 5-4로 물리쳤고, 대회 첫 단일팀 경기는 제33회가 제32회를 9-0(5회 콜드게임)으로 제압, 첫승을 누았다.

연합팀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선수상 : 최충락(14회) ▷우수투수상 : 허 섭(10회) ▷우수수상 : 이상훈(11회) ▷타격상 : 이효근(14회) ▷감투상 : 허광열(6회) ▷인기상 : 김영식(14회) ▷미기상 : 김한조(10회) 홍기석(10회) 강원수(14회) 최병수(6회)

제8회 골프대회 입상자 · 협찬자 · 행운상 수상자

■ 단체 · 개인진 입상자

▲단체전 ▷우승: 제19회(우승컵-부상) ▷준우승: 제20회(준우승컵-부상) ▷3위: 제26회(3위컵-부상)

▲개인전 ▷우승: 서부원(18회) ▷메달리스트: 이수호(20회) ▷준우승: 김봉호(19회 · 이상 트로피-부상) ▷3위: 조종수(27회) ▷4위: 김영철(36회) ▷5위: 윤성욱(17회) ▷통기스트: 이호진(40회-290m) ▷니어리스트: 엄재홍(28회-1.57m · 이상 부상)

▲시니어부 ▷우승: 안강태(11회) ▷메달리스트: 이상준(9회) ▷준우승: 권병용

(11회 · 이상 트로피-부상)

▲여성부 ▷우승: 문성애(20회 장영훈 동문 부인) ▷메달리스트: 안영자(14회 박용화 동문 부인) ▷준우승: 정금대(9회 정행권 동문 부인 · 이상 트로피-부상)

■ 행운상 수상자

▷대상 = 이천규(20회) 변대석(22회) 김경환(40회) · 이상 각 골프기방-옷가방 ▷특별상 = 이춘만(19회) 현희수(20회) 박준홍(38회) 등 5명 · 이상 각 데이비드 우드 ▷1위 = 박용화(14회) 허남균(20회) 이석

호(25회) 변문성(32회) · 이상 각 쿠쿠전기 압력밥솥 ▷2위: 안강태(11회) 허홍욱(19회) 김용섭(27회) 김용재(29회) 이승렬(37회) 정준기(38회) 이규진(45회) · 이상 각 골프화 · 스윙기 ▷3위 = 장병호(20회) 박종규(31회) 문기성(40회) 최하용(40회) · 이상 각 롯데햄 세트 ▷4위 = 이화봉(11회) 차성철(38회) 정인혁(42회) 등 4명 · 이상 각 수산물 세트 ▷5위 = 김백수(17회) 박종화(19회) 등 10명 · 이상 각 방한복 ▷6위 = 정행권(9회) 김달경(11회) 서부원(18회) 등 10명 · 이상 각 골프공 빅야드 ▷7위 = 안영자(14회) 박용화 부인) 양철웅(34회) 노인철(40회) 등 15명 · 이상 각 스프레이 식 소화기.

■ 격리금 협찬자

▷조대제(7회 · 본부 고문) = 20만원 ▷정행권(9회 · 본부 고문) = 20만원 ▷오강욱(10회 · 본부 자문위원) = 10만원 ▷안강태(11회 · 본부 회장) = 200만원 ▷오완수(11회 · 본부 자문위원) = 20만원 ▷신준호(14회 · 재경 고문) = 200만원 ▷박병선(14회 · 본부 부회장) = 20만원 ▷손부홍(15회 ·) = 20만원 ▷송규정(16회 ·) = 20만원 ▷양성민(16회 ·) = 10만원 ▷김길제(18회 ·) = 20만원 ▷남진현(19회 ·) = 20만원 ▷석무관(19회 ·) = 10만원 ▷이용흠(19회 ·) = 20만원 ▷이재호(21회 ·) = 20만원 ▷박재상(22회 ·) = 20만원 ▷박홍조(22회 ·) = 20만원 ▷박기욱(23회

·) = 20만원 ▷정영환(24회 ·) = 20만원 ▷김진철(25회 ·) = 20만원 ▷김두천(26회 ·) = 10만원 ▷최강호(28회 ·) = 20만원 ▷김대욱(29회 ·) = 20만원 ▷박명진(33회 ·) = 20만원 ▷재경동창회(회장 천신일 · 15회) = 100만원 ▷제11회동기회(회장 현정춘) = 100만원 ▷용마회(회장 박병선 · 14회) = 50만원 ▷평마회(회장 안강태 · 11회) = 50만원

■ 시상품 기증자

▷신준호(14회 · 대선소주 회장) = 롯데햄 세트 10점(70만원 상당) · 시원소주 15상자 ▷윤승홍(14회 · 재경용마골프회 초대 회장) = 볼마크 250개(400만원 상당) ▷구자신(14회 · 쿠쿠전자 대

표) = 쿠쿠전기 압력밥솥 등 4점(80만원 상당) ▷이길미(14회 · 태성산업 대표) = 골프화 5점(100만원 상당) ▷여성렬(17회 · 서면골프 대표) = 골프화 5점 · 골프스윙기 2점 · 골프장갑 20점 · 시구공 등(100만원 상당) ▷서부원(18회 · 한샘주택 대표) = 스프레이식 미니소화기 20점(80만원 상당) ▷구현수(21회 · 데이비드 대표) = 우드 5점(80만원 상당) ▷유재진(22회 · 뉴유창물산 대표) = 골프가방 세트 6점 · 방한복 20점(300만원 상당) ▷정상수(22회 · 제일농수산 대표) = 수산물 세트 7점(50만원 상당) ▷윤덕승(28회 · OB맥주 부산지점장) = 병맥주 10상자 ▷강병중(넥센 회장 ·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빅야드 골프공 50상자(200만원 상당)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항금알' 을 낚습니다.

각 동기회 · 직능회 · 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12월16일 '용마의 밤'

부산롯데호텔서 팡파르 1,200여 명 참석 예상

국내의 용마가족 대망의 빅이벤트 '05용마의 밤' 축제가 오는 12월16일(금요일) 오후 6시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이날 부산과 서울을 비롯해 울산 창원 마산 진주 포항 대구 대전 등지에서 12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신조선 대표이사)이 주재하는 올해 행사는 기념식에 앞서 '모교 63년-용마 60년'을 영상으로 연출하고 식전 공개행사를 펼

친다.

제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 교가제창 유공동문표창·골프우승팀시상 내빈소개 회장인사 고문격려사 재경회장축사 만찬·축배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전문MC가 리드하는 제2부 버라이어티쇼가 열린다. 초

대 남녀가수와 동문 대표 열창, 초청 댄싱팀·국악인·남녀 보컬팀·동문들로 구성된 실내악단 등이 특유의 실력을 발휘한다. 이 가운데 행운상 추첨을 벌여 행운대상의 주인공을 찾아낸다.

이번 행사도 예년과 같이

선·후배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심고 존경과 격려와 사랑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새해 설제의 광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12월 중 본부동창회 각종 행사는 다음과 같다.

△용마산악회: 10월27~30일 중국 황산

등정 (2차 정기산행)·11월27일 영남알프스서 05결산 산행 (당일 오전 7시 부산진역 앞 출발)·종합시상 (각 동기회 올해 산행 참가 인원 점검)

△제37회 기벌대항 야구대회 폐막식: 11월5일(토요일) 오후 4시 경남고구장·앞서 2시부터 결승전 진행

△본부 회장단회의: 11월9일 (수요일) 오후 6시30분 대어초밥·주요업무·각종 행사 보고

△본부 이사회: 11월29일 '05용마의 밤' 축제 계획안·예산안 심의

△용마장학회 이사회: 11월 말경 개최.

2005년 중간결산 보고·2006년 예산안 심의

홈커밍 사상 첫 크루즈 투어

제9회 졸업50돌 행사 부산 관광유람선서 펼쳐 해안절경 심취 1박2일... 모교서 '교훈비' 첫 삽

칠순의 용마가족 113명이 홈커밍데이행사 사상 첫 크루즈 투어에 나서 국제해양관광도시 부산에서 1박2일간 아름다운 해안절경과 환상의 야경을 탐닉했다.

제9회동기회는 지난 10월22~23일 크루즈 투어로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행사를 치렀다. 한동대 회장과 허남수 재경회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8명의 해외동문(뉴욕 김창규, LA 김태준 주재현 탁영채, 샌프란시스코 조동훈, 시애틀 장대양, 베르린 박성조, 도쿄 신선호)을 비롯해 부산 54명(부인 18명), 재경 51명(부인 15명)이 참석했다.

첫째날(22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 여기저기서 너무 반가워서 죽고 못 살 것같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감격하는 바람에 파시(波市)를 방불케 했다.

오후 4시, 팬스타(Pan Star-21,000톤급)호가 부두를 빠져 나갔다. 조도를 거쳐 '부산의 나폴리'로 불리는 태종대를 둘러 물운대에 잠시 기항, 황홀한 일몰을 감상했다. 용마가족 등을 태운 유람선은 부산의 랜드마크 오륙도~온천육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민휴양지 해운대~세계적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광안대교 등을 관광시켰다.

특히 광안대교 앞바다 폭죽놀이 이어 이벤트홀에서의 선상댄스파티·쇼 관람·노래자랑(합창부 출신 한득추 동문이 '제비'를 열창해 입상) 등 17시간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둘째날(23일) 오전 6시30분 해

김경희 동문(재경동창회 고문)의 사회로 교훈비(校訓碑) 기공식이 열렸다. 사회자 경과보고, 교장 건립 취지-제작과정 설명, 허남수 재경회장 건립비 3천만원 전달, 작고 동문들을 위한 묵념, 교가 - 응원가 제창 등으로 이어졌다.

교훈비는 앞면에 현재 교훈·뒷면에 옛 교훈을 각각 새긴다. 오는 12월 초 준공예정인 이 비

아름다운 동산을 둘러봤다.

오후 12시45분 청사포 '해맞이타운' 최성욱 부산 총무의 사회로 졸업 제50주년 기념식이 거행됐다. 한동대·허남수 회장의 인사에 이어 김경희 동문은 해외동문, 최 총무는 부산 동문, 김기관 재경 총무는 서울 동문(대전 강재화·대구 이재현 포함)을 차례로 소개했다.

특히 윤중대 동문이 제안한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 발간·사진 첨부 동기회수첩 제작' 안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운대 청사포에서 장엄한 일출을 감상한 후 9시에 하선했다. 일행은 10시15분 모교를 방문, 권명미 교장과 김승수 교감, 허홍욱 학교운영위원장(19회·부산대 사범대 교수) 등의 영접을 받았다.

는 가로 4m60cm·세로 1m60cm·좌대 높이 1m20cm·밑면 2m이고, 글씨는 황영선 동문(변호사)이 맡기로 했다.

일행은 원형교사 앞에서 기념촬영(사진)을 한 후 체육관 국산기념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과

논의기로 했다.

싱싱하고 달착지근한 생선회와 전통의 기장미역국의 별미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오후 6시, 부산역에서 석별의 정을 나눴다. 서울 동문들은 7시 20분발 KTX편으로 떠났다.

이창우 (8회) 뉴스통신진흥회 초대 이사장



이창우 동문(8회·사진)은 지난 10월 24일 공식 출범한 뉴스통신진흥회 초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동문은 부산일보 기자로 입사한 후 편집국장 겸 전무이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부산을 가꾸는 모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박영주 (13회) 한국메세나 협의회 회장



박영주 동문(13회·이건산업 회장·사진)은 최근 문화예술회 지원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메세나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박 동문은 지난 1990년부터 해외 연주자를 초청해 지역 사회에 음악회 감상기회를 제공하는 이견음악회를 운영했고, 2003년 '메세나 대상 보급상'을 수상했다. 특히 박 동문은 솔로몬군도의 뉴조지아섬에 8천만 평(서울 여의도 면적 90배)의 삼림을 조성해 더욱 유명하다.



여자들의 속마음 알고도 모를 일

- 작하고 돈 없는 남자 >불쌍하다
- 똑똑하고 돈 없는 남자 >재수 없다
- 유식하고 돈 없는 남자 >짜증난다
- 애교 많고 돈 없는 남자 >영양가 없다
- 검소하고 돈 없는 남자 >명청하다
- 재미있고 돈 없는 남자 >재미없다
- 주위에 여자가 많고 돈 없는 남자 >존재할 수 없다
- 집안 좋고 돈 없는 남자 >관심 없다.
- 사업하다 망한 집안 >그렇다면!!! 음~
- 성질 더럽고 돈 많은 남자 >사업가 기질이 있군
- 돌머런데 돈 많은 남자 >역시 돈 버는 머리는 따로 있어
- 무식하고 돈 많은 남자 >어머 순진하기까지
- 왕내승에 돈 많은 남자 >어쩔 완벽한 포커 페이스야
- 뻗뻗하고 돈 많은 남자 >애교로 녹인다
- 허영 덩어리고 돈 많은 남자 >같이 허영에 동참해야지
- 썰렁하고 돈 많은 남자 >그건 썰렁한 게 아니다
- 주위에 여자가 많고 돈 많은 남자 >언젠간 내가 널 사로잡아버릴 거야

집안 변변찮고 돈 많은 남자 >그 의지력에 감탄, 존경해줌
집안 좋고 돈 많은 남자 >역시 사람은 출신이 중요하다니깐

경상도 사투리의 놀라운 압축 효과

-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기 머꼬?
-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고다꼬 미술샘
-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할배꼬?
-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누구냐? >저는 누꼬?
- 너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하니 너가 이렇게 말하는 거냐?
- >니 그카이 내가 이카지 내 그카이 니 이카냐?
- 나 배고파! 밥 차려 줘, 밥 먹어! >밥도 재 무래
- 자기야 한 번만 주라! >함도!
- 야, 저 너석 구석에 쳐박아! >점마 공가라!
- 야, 정말로 황홀하고 멋있다! >직인다!
- ...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 회보 <Newsletter> 제3호 '웃자코너'의 내용 전재)

12월7일 송년회 겸 정기총회 개최

재경 경팔회 이사회 확정 ... 문집 제작과정도 보고

재경 경팔회는 오는 12월 7일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9월 27일 이규환 회장 주재로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사회는 앞서 문집제작과정을 보고하고 표제 선정문제도 논의, 기본틀을 정했다.

04~05왕중왕 정진수·이정화 제142차골프 우승 김영기

골프모임 잔디회는 지난 10월6

부부동반 초가을 모임 열성 제15회동기회 각 친목회

제15회동기회 각 친목회 9월 활동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열렸다.

의약회(회장 유경수)는 15일 오후 7시 8명이 부산회식당에 모여 정례회를 가졌다.

가람회(회장 김중광)는 12일 오후 7시 죽마고우에 회원 전원이 부부동반으로 참석, 월례회를 열었다.

일 안성C.C에서 '04~05왕중왕' 결정전을 겸한 제142차 월례회를 열었다.

배주원 회장이 주재한 이날 경기에서 왕중왕의 영광은 정진수 동문(87타)과 김정화씨(98타)가 안았다.

또 월례대회는 남자부 우승 김영기(84타·-3)·준우승 김태규·3등 배주원·니어리스트상 김호석·행운상 김영길 동문이, 여자부 우승 김정화·니어리스트상 이정자씨가 각각 차지했다.

화친회(회장 김중태)는 11일 오후 6시 30분 연산동 할매나지집에 14명이 모여 제 157차 월례회를 열었다. 특히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직을 끝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영훈 동문 환영회를 겸했다.

또 이화회(회장 박재준)는 11일 오후 7시 초읍의 원미추어탕에 4명이 모였고, 삼팔회(회장 허두영)는 8일 오후 7시 부산회식당에 부부동반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6차 정례회를 가졌다.



제21회 동문들과 부산고 제20회 동문들이 친선바둑대회를 마친 후 함께 포즈를 취했다.

부산고 제20회 동문 초청 제21회, 친선바둑대회 열어

작년 이어 두 번째 ... 4-6 패

제21회동기회는 지난 10월8일 오후 3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1967년 졸업연도가 같은 부산고 제20회 동문 초청 친선바둑대회를 주관했다.

이재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바둑대회는 지난해 5월 첫 행사를 같은 장소에서 치른 후 두 번째

로 모두 40여 명(각각 20여 명)이 참석, 열전을 펼쳐 제21회가 4-6으로 양보(?)했다.

수담 후 열린 단합회는 '동시대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동반자'라는 인식대를 확인하면서 친교와 우의를 넓혔다.

특히 동기회 전기환 바둑회장과 민한식 총무가 단합회 경비협찬을 비롯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낭만꽃핀 '왕중왕' 부러보!"

제9회 졸업50돌 기념 크루즈투어 동행기 김경희

제9회동기회(회장 한동대·재경회장 허남수)가 자랑스런 경남고를 졸업한 지 어언 반백년. 뜻 깊은 5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지난 10월22일~23일 거행되었다.

백발 혹은 반백의 70세 노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꿈에 그리던 모교를 방문하여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개무량한 가운데 옛 동무들을 만나는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모두의 얼굴에 흥안의 모습은 간 데 없고 주름살이 깊어진 노년이지만 동문들의 마음은 옛날의 젊음 그대로였다.

뉴욕(김창규)·LA(김태준) 주재한 탁영채)·샌프란시스코(조동훈)·시애틀(장대양)·베르린(박성조)·도쿄(신선호) 등 해외 거주 동문 8명을 비롯하여 부산 54명, 재경 51명 등 113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평생을 반려자로 헌신해 온 33명의 부인들도 동참했다.

10월22일(토) 오후 3시, 일행은 부산 연안여객터미널에 집결, 팬스타(Pan Star·21,000톤)호에 승선함으로써 크루즈(Cruise)행사가 막을 올렸다.

지난 50년 동안 사회 곳곳에 진출하여 술한 도전과 시련을 겪고 당당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노장들이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잊혀졌던 시공을 초월하여 서로를 확인하고 스킨십(Skinship)을 통해 우정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17시간 동안 조도~태종대를 둘러 물운대에 임시 정박하여 일몰을 감상하고 오륙도~해운대~광안대교 앞바다에서의 폭죽, 그리고 선상댄스파티, 쇼 관람, 콩쿠르대회 등의 순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콩쿠르대회에서는 합창부 출신 한득추 동문이 '제비'를 불러 입상했다.

바람직한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온 옛 동무들과 어울려 삼삼오오, 웅기종기 회포를 푸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이틀날인 23일 오전 6시36분 일출에 맞춰 해운대 청사포에

서 해돋이를 감상했다.

9시에 하선한 일행은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9시30분 모교를 향해 출발했다.

10시15분에 도착한 구덕산에 자리한 경남고는 우리에게 끝없는 자부심과 지식과 지성과 교양을 심고 가꾸어준 보금자리였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권명미 교장과 김승수 교감, 그리고 허홍욱 학교운영위원장 (19회·부산대 사범대 교수)의 영접을 받았다. 제9회동기회가 성금을 전달하여 건립하게 되는 교훈비(校訓碑)는 교문에서 바라보면 가장 좋은 위치에 세워지게 된다. 앞면에 지금의 교훈, 뒷면에는 옛 교훈을 새기게 되는 교훈비에 쓰여질 자연석의 크기는



제9회동기회 집행부 임원 등 관계자들이 졸업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경남고 교훈비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가로 4m60cm, 세로 1m60cm, 좌대 높이 1m20cm, 밀면 2m로 한 달 간의 작업이 끝나고 12월 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씨는 황영선 동문(변호사)이 맡아주기로 했다.

기공식 사회를 맡은 필자가 경과보고를 했고 권 교장이 건립취지 및 제작과정을 설명했다. 허남수 재경회 회장은 권 교장에게 건립비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동문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고 교가와 응원가를 제창한 후 식을 마무리했다.

이어 원형교사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후 체육관 국산기념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과 아름다운 동산을 둘러보고 11시30분 모교를 떠났다. 모교에 머무는 동안 동문들은 후배들의 대학 진학에 관한 질문을 던져 권 교장으로부터 "어떤

게기가 되면 남아있는 부지 5천 평에다 기숙사를 지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겠다"는 야심찬 설명도 들었다.

일행을 태운 버스는 광안대교를 거쳐 12시45분경 청사포 '해맞이타운'에 도착했다. 최성욱 총무의 사회로 열린 졸업 50주년 기념식은 먼저 한동대·허남수 회장의 인사에 이어 필자가 해외 동문을 소개했다. 최성욱 총무는 부산지역 동문을, 김기관 재경회 총무는 서울지역(대전 강재화·대구 이재현 포함) 동문을 각각 소개했다.

멀리 해외에 머물면서(미국 오클랜드) 제9회 동문들의 졸업 50주년 기념문집 발간과 마지막 될지도 모를 사진 첨부 동기회 수첩 제작을 제외한 윤중대 동문의 안전은 동기회가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성스레 마련된 싱싱한 생선회와 전통의 기장미역국의 별미는 참석한 모두를 즐겁게 했다.

20세기 중반 농경시대에 태어나 2차 대전과 6·25전쟁을 겪은 우리 동기생들은 산업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거쳐 21세기 신정보화시대를 맞이한 세대다. 흔히 얘기하는 Mass의 시대가 Multi시대로 바꿨는데 Digital시대로 옮겨갔다. 상상을 초월한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온 9회 동문들은 이제 인생을 관조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그동안 수고한 두 회장과 최성욱·김기관 총무의 노고에 감사하는 박수로 격려했다.

모교에서 배운 숭고한 정신과 유지를 계승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홈커밍데이행사는 오후 6시 부산역에서 해산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재경동기회 동문들은 7시20분발 KTX편으로 상경했다. 멋진 랑데부(Rendezvous)는 이렇게 끝났다.

살며 사랑하며

가을밤 과수원

이도환 제7회·대해농장 대표



기도 하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청량한 색깔이기도 하다. 저들고 고달팠던 마음을 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씻어보자.

영국의 시인 워드즈워스는 그의 시에서 '조각난 그림을 다시 짝 맞추어 지난 모습 되찾아...' 라고 읊었다. 증오와 절망을 씻어 버려야 할 때이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의 저 빛이 희망의 빛이 되어, 아름다운 단풍잎이 떨어지는 다음 계절을 위하여 그 낭만을 간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자.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벗들과 자주 어울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더해가는 이 가을이다.

명상의 계절 가을이 짙어가고 있다. 바람이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진다. 지난 여름도 꽤 무더웠는데 이젠 아침저녁 제법 가을맛을 느끼게 한다.

요란스럽던 매미 소리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잠플 벌레 소리들이 마루 안 형광등 불빛 주위로 모여든다. 중턱에 들어선 가을의 공기를 벌써 느꼈는지... 여름이 가면 자신도 곧 사라질 운명을 알아 차렸는지, 그래도 한여름의 온기가 그리운지 온갖 날개 소리를 내며 안으로 날아든다.

한 뼉 열린 방 안의 창문 틈을 타고 제법 싸늘한 가을 바람이 스며든다. 창은 계절을 느끼게 하는 마음 속의 또 하나의 창이며, 무상한 세월의 전령사인 듯하다.

이렇듯 벌써 칠순을 넘긴 나이를 실감케 한다. 가을이 오면, 지난 세월을 회상하게 하며 이미 고인이 된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린다. 개구쟁이 때를 채 벗지도 못한 소년 시절(경남중)이 엇그제인 듯 주마등이 되어 흘러간다.

여름 긴 장마와 무더위를 용케도 잘 견뎌낸 나뭇잎들은 지난 밤 내린 비에 깨끗이 씻겨어 영

롱한 푸른 빛을 간직하고 있으나 저만치 밀려오는 '단풍물결'을 피하지 못한 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인간도 우주의 자연과 순환의 법칙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 고된 삶에 찌들려 가을을 재촉하는 매미 울음소리나 점점 더해가는 귀뚜라미 노래소리마저 싫어져 행여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는지, 이 모두가 자연 법칙인 것을...

아쉬운 마음으로 지난 여름을 뒤돌아본다. 운동주님의 시 구절을 떠올려본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었는지?' 이렇게 되기를 바라

지만 웬지 위선 같아서 생각을 멈춘다.

찌르르... 찌르르... 이어지는 농장의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른다.

어려운 시기에 큰 탈 없이 묵묵히 살아온 게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늘은 모처럼 청명한 하늘이 푸른 속살을 드러냈다. 칠 잃은 잦은 비에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했지만 오늘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중턱에 머물고 있는 가을 하늘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처럼 싱그럽기만 하다. 저 푸른 가을 하늘은 계절의 정수(精髓)이

천지에서 애국가 합창하며 통일 염원

재경14회 부부동반 백두산 등반기 손수정

지난 8월 20일 오후 4시 서울 지하철 교대역 대합실. 재경14회 백두산 등반대가 저녁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모였다. 김영치 회장님과 이광우 총무님, 조용균님, 최양수님 등이 격려 환송 해주었다.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중 김포 신도시 한 소공원 풀밭에서 피크닉형 식사를 했다. 김밥 한 줄과 순두부 한 그릇 플러스 설레임과 기대. 굿 아이디어 파티였다.

- Veni : 왔노라

첫째날 : 오후 8시3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대원 43명은 박진 대장의 리더에 따라 대련을 거쳐 아주 늦은 밤 연길에 도착했다. 시내 중심가의 세기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백두산 트래킹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날씨는, 몸 컨디션은...' 등 잡념으로 통 잠이 오지 않았다.

둘째날 : 새벽 5시, 중형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4시간을 달려 백두산 아래 첫 동네 이도백하에 닿았다(이곳서 다시 백두산 서파 산문까지 4시간 소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거의 한글 간판 일색인데 정다웠다. '성신 오두바이 수리

부' '행복 흥돈 식당' 기억 합시다. 가족의 애단 기다림을- 안전 운전 표지판.

시가지를 벗어나자 해바라기 밭 구릉과 시냇물, 소와 양떼들이 눈요기를 시킨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휴게소, 자두만한 능금도 먹고 손수건 지도도 샀다. 이때 불상사가 생겼다. 조정현 님이 연길의 호텔 배개 밑에 부부의 여권과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것이다.

재빨리 호텔측과 통화한 가이드가 "호텔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라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금강 대협곡은 길이 12km V자 형태. 쭈뼛쭈뼛한 기암괴석과 철분 섞인 흙인지 바위인지 구별되지 않는 칼날같이 선 바위들. 원시림 속에 목판 길을 따라 걸으며 흡사 그랜드 캐년 같은 위용을, 먼 옛날 화산이 분출되어 튀겨져 나왔을 그 모습에 으스스 경외감을 느낀다. 백운산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에 비친 옥색빛 먼 하늘과 분홍빛 구름은 시시각각 묘하게 변하며 황홀감을 연출한다.

- Vidi : 보았노라

셋째날 : 새벽 2시, 천지 향해

출발. 지프차를 같이 탄 최건차님의 말은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백 번 와서 두 번 볼 수 있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전했다(믿지 않아도 됨). 뽀얀 달빛 아래 1386 계단을 40분쯤 오르니 천지와 봉우리들이 괴기스럽게 펼쳐진다.

4시30분 해 뜨기까지 시간을 서성이는데, 저쪽에서는 신기석님의 지휘로 '애국가'에 이어 '우리의 소원', '저푸른 초원

장은 후미 부대장과 의논하여 제일 빌빌거리는 대원들을 호명. 맨 앞에 세운다.

환자 발생. 김용후 총무와 현지 가이드 송철균이다. 앞서 올라온 의사 이현영 님과 이창화 님은 왕진 요청을 받고 잠시 난감해 하더니 내려간다. 김 총무는 과로하여 녹다운된 모양이고 송철균은 감기몸살.

깨어진 화산석을 내 발로 엉금엉금 기어 백운봉에 오른다.

러는 미끄러지는 수모(?)를 겪는다.

천지물이 장백폭포로 가는 우렁찬 개천을 만나고 10여 분 걸어 천지 물가에 닿는다. 갖은 고생 끝에 천지 물을 직접 마시고 만지게 되었구나!

체력이 한계점에 이른 8명은 삼륜 딸따이를 타고 달문 입구에 내린다. 장백폭포까지도 먼 먼 고난의 길이다. 980개의 계단이 때로는 수직으로 있어 몹시 지친 다리가 너무 아파 속소인 천상호텔까지 걷는다. 14시간 반의 강행군.

저녁은 입맛이 통 없다. 대장은 산천어 먹을 지원자들을 뽑아 간다. 남편과 나는 더운 방이 싫어 웅대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별 구경을 한다. 마침내 백두산 종주를 우리도 해냈구나!

네째날 : 천문봉에서 천지를 조망하고 곰 사육장, 만주별을 흐르는 해란강, 독립운동가의 요람인 대성학교와 윤동주기념관을 방문해 방명록에 사인하고 정성도 보낸다. 연길시의 최고급 백산호텔 만찬장. 화려한 만찬과 말찬치를 즐긴다.

마지막날 : 심양을 떠나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일행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고 다짐들을 한다.

(글:이창화 동문 부인)



제14회재경동기회 동문·가족들이 백두산 등정을 하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위에'를 메들리로 엮는다.

"오!"하는 합성을 뚫고 태양이 이글거리며 솟아오른다. 천지는 신비 그 자체다. 모두들 낮을 잃고 있다.

첫 번째 음팡진 조밥당이 도시락을 모아서 먹고 한허계곡으로 내려간다. 천지의 물이 만주 땅으로 흘러드는 계곡 물은 차다차서 밭 담그고 서른까지도 세기 어렵다. 백운봉으로 직진할 수 없어 우회한다. 박 대

담청색 천지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박순봉 님과 최낙섭 님은 사진 찍기에 여념 없고, 먼저 왔던 사람들은 백운봉 정상 중의 정상에 도전하고 있다.

- No Vici : 이길 수는 없었노라

들꽃 만발한 초원지대를 지나 달문으로 내려가는 급경사의 너덜지대. 300여m의 빼죽빼죽한 화산돌길을 부들부들 떨며 기며 죽기살기로 내려온다. 더

폭포수와 기암괴석에 넋 잃어

본부 용마산악회 주관 내연산 참가기 김미란

9월 11일 내연산 오르기. 본부 용마산악회 제22차 산행대회에 동행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9월이 무색할 만큼 비 온 뒤라 습기와 함께, 더러는 운무와 함께 바람도 별로 없는 더운 날씨였지만, 좋은 코스를 추천해서 안내해 준 용마산악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장님을 못뵈서 좀 서운했지만요.

태웅씨 덕택에 부산진구 주민은 먼저 승용차로 보경사에 도착, 절도 구경하고 방금 만들어 나온 뜨끈뜨끈한

하산길은 계속 이어진다. 장엄한 물소리가 우릴 또 한 번 유혹한다. 오른쪽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소나무의 조화도 장관이지만 때마침 내린 비 탓에 그 풍부한 수량으로 계곡은 '시원함의 극치'를 이룬다. 산행의 피곤함이 한 방에 날아가는 순간이다. 영영 머물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연산폭포를 배경으로 저마다 품잡고 사진을 찍는다. 얼마 전 게시판에 올린 25년 전 남편이 애리애리하고 호리호리한 모습으로 혼자 폭포 앞에



본부 용마산악회 주관 내연산 등반대회 중 제33회 동문·가족들이 연산폭포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두부맛도 보고... 제법 한가하게 한 시간을 즐긴 뒤 우리팀과 합류해 산행에 발품을 팔고 점심을 먹은 후 정상으로 오르고 계곡으로 하산한다.

하산길 내내 멀리서 장엄한 물소리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아마 계곡이 가까이 다가가는구나' 하며 내려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계곡에서 발 담근 채 세수하며 즐기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탄성. 순간 우리 대원 세 사람 물 만난 고기마냥 웃을 입을 채 철쭉 소리를 내며 점프를 한다. 참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 찍었던 사진을 다들 봤을 테다. 이제 중년의 모습으로 옆에 흑(?)하나 달고 행복(나 혼자 생각인가?)해하는 모습이라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쉬움을 억누르며 하산을 재촉한다. 온천욕을 하고 나니 피로가 싹 가신다. 좀 허기져 게 눈 감추듯 산채비빔밥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동동주 한 잔에 두부에 호박전도 맛본다. 오랜 만의 포식이다.

부산행 버스 안은 구수한 정담과 술잔으로 우정을 피운다.

(글:제33회 김범영 동문 부인)

천성산·백양산 등 4개 산 연속 등정

경팔산우회 10월 중 산행

산우회장이 이끈 산행은 22일 양산 근교의 천성산, 15일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 8일 경남 김해 근교 신어산, 1일 부산의 백

양산을 차례로 올랐다. 29일 속리산 등정은 동기회의 28일 부석사 야유회 때 문에 11월로 미뤘다.



"이쯤이야..." 6명 설악준봉 누벼

재경8회 산우회 9월 산행노트 정형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볼 듯합니다.

윤동주 님의 시 '별을 헤는 밤'의 구절이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가로수의 낙엽이라도 밟으며 걸어가는 재미를 맛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유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벌써 10월. 산은 단풍 그리고 낙엽으로 뒤덮이고 있다. 가을 속의 별들을 헤는 청정한 마음으로 가로수의 낙엽이 아닌 산 속의 쌓인 낙엽을 밟는 계절이다.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회원들은 올 가을에도 변함없는 힘과

열정으로 산행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9월5일에는 회원 6명(김영철 노재복 박성재 서영욱 이희순 정형수)이 설악산을 다녀왔다. 2박3일 계획으로 떠났으나 태풍 '나비'가 등을 밀어 한계령-중청-소청-회운각(1박)-양폭 코스를 1박2일로 마무리하였다.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나비'의 영향은 다행히도 우리 일행이 하산길 신홍사 가까이에서 비를 맞기 시작할 정도에 그쳐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다.

설악은 언제 찾아가도 그 자태가 깊고 산세가 변화무쌍하여 활력이 넘친다. 귀가길에 차창 너머 '나비'의 영향으로 피어오른

등근 무지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보너스였다.

9월의 산행일지를 소개한다.

▷2일 : 도봉산 12명. 하산길에 소나무. 오랜만에 굵은 빗줄기에 흠뻑 젖다.

▷9일 : 수락산 11명. 부슬비를 맞으며 산행. 하산길에 비를 피해 입구에서 멀지 않은 팔각정에서 도시락점심. 다른 일행들 틈에서 먹는 맛도 별미.

▷16일 : 관악산 15명. 3주 만에 좋은 날씨. 초가을 햇살로 기분 좋은 산행을 자축하며 하산길엔 맥주파티. 그 기세를 몰아 일부 회원들은 2차(싱싱한 회에 소주 맥주), 그리고 마무리로 노래방.

▷23일 : 북한산 12명. 상쾌한 가을 날씨. 어제 내린 비로 청명한 하늘에다 짙푸리분과 주변 봉우리들이 더욱 맑고 환한 모습.

▷30일 : 도봉산 8명. 아침부터 비. 우중산행. 2일에 이어 두 번째. 입구 가까이 팔각정에서 점심. 서영욱 회원이 정성들여 삶아 온 토종빔은 그 맛이 천하일품.

역사탐방 속 광란의 라이브쇼도

제24회 경부합동 경주야유회 108명 참석

제24회동기회 경부합동 05야유회(하계캠프)가 지난 8월20~21일 이틀간 천년고도 경주에서 역사탐방을 겸해 펼쳐졌다.

최승국(부산) 권영기(재경)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동문·가족 108명이 참석,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라이브쇼를 벌였다.

일행은 첫날(20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 들러 역사공부(부산)를, 서울팀은 감은사지와 문무왕 수증릉 등을 견학했다. 저녁 7시경 코오롱호텔 대회의실에서 학수고대하던 버라이어티쇼의 주인공들로 출연했다. 식당에는 양주 수십 병을 비롯해 소

창~장성환의 '사랑은 미완성'~이상룡의 '남만에 대하여' 등이 열창되었다.

잠시 후 '24폭탄주(48잔의 폭탄주 사용·제조자 김경남 고문)' 등장. 최 회장·권 회장·일류정 고문·청파 안 수석이 경호(?)하는 가운데 '건배의 달인' 태사자 태창업 고문이 건배 선창을 하자 한바탕 폭탄주가 돌러졌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사행시에 당선된 송순철 부부와 이석우 부부가 사골을 받고 답례로 '...달그림자...'를 뽑았고 김영범이 독창을 한 후 부산-서울-진주-울산 팀 등이 단체전 노래



제24회 경부합동 경주야유회에서 동문들과 가족들이 노래·장기자랑을 펼치며 우정을 심고 있다.

주·맥주 수십 박스, 수북히 쌓인 뉴질랜드산 쇠고기사골세트(최승국 회장 협찬), 동해산 간고등어 120상자(류홍석 부회장 협찬) 등이 시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여흥은 사행시 대항 백일장(여성 대상)·노래자랑·장기경연 등으로 연출됐다. 백일장에서 네부인이 장원·차상·차하(2명)를 차지, 사골세트를 안았다. 노래자랑 첫 무대는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유병우 동문과 그의 부인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장식했다.

이어 조재진의 '목로주점'~권영기 재경회장 인사말과 축배제의~축배제창~정철화의 '연상의 여인'~울산팀(이우영 회장 등 6명) 등단과 이석우 부인의 'When I was a little baby...' 선

자랑을 벌였다. 장기자랑은 거의 광란(?)에 가까웠다.

뒷날(21일)은 남산 순례. '남산지킴이 - 10년 경력의 문화유산해석가' 최성욱씨가 삼릉~금오산(468m)~불두(佛頭) 없는 석조여래좌상~마애관음입상~선각옥존불~마애여래좌상~배리 삼존불~바둑바위 등을 둘러봤다.

산을 내려와 고향손칼국수집에서 칼국수 등으로 요기를 했고 오후 5시경 서울팀 등과 작별했다.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최승국·변용준=각 100만원 △정영환·안상수·서울임원진=각 50만원 △김무성=30만원 △노상우 원동희 김청천 최원주 배재일 김규철 울산회=각 20만원 △박홍규 김경남 여철우 이창무 한승철 유동욱 강동우=각 10만원 △최동우=5만원



남덕유산~향적봉 종주에 성공한 삼공회 경부합동산행팀이 향적봉에서 포즈를 취했다.

삼공회 경부합동산행·수학여행

남덕유산~향적봉 종주 이은 한마당 한 효 용

내년 봄 졸업 30주년 홈커밍 데이 행사의 리허설로 기획된 '삼공회(30회) 삼공년(30년)만의 삼공리(무주 구천동 들머리 수학여행 전야제 장소) 경부합동수학여행'은 대성공이었다.

첫날(8일) 경부합동산행대회는 영각사~남덕유산~월성재~삿갓재대피소~무룡산~동업령~송계삼거리(백암봉)~중봉~향적봉~설천봉~곤도라~무주리조트 코스였다.

부산 삼공산악회는 5명(정용하 서민석 박정태 천성일 장상현), 서울 삼공산우회는 6명(한효용 김인섭 박광용 신경호 이민영 최신평), 창원 삼공산우회는 2명(임영수 오경태)이 참가했다.

수학여행 전야제는 이날 6시 30분 삼공리 관광회관에서 막을 열었다. 행사장은 산꾼 13명이 합석함에 따라 모두 70여 명이 됐다.

산행팀과 수학여행팀이 만나 '소란한 잔치판'을 벌였다. 전야제는 황철민 본부 회장·김부중 재경 회장·박원호 울산

회장이 차례로 인사말을 했고 축배에 이어 각자 자기 소개를 했다. 전국서 모였으니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졸업 후 처음 만난다는 친구도 있다. 재학시절 학생회장이던 최거훈이 응원구호를 선창, 흥을



삼공회 경부합동 수학여행팀이 무주구천동 삼공리에서 즉구경기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다.

돋군다. 저녁식사 후 빠지면 서운한 "후라 경고!"와 응원가를 부르며 모두 밖으로 나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숙소로 돌아온 개구쟁이들(?)은 30년 전 설악산 수학여행 때도 그랬듯이 지정된 방에 얌전히 있을 수가 없었다. 경부 바둑시합을 하는 10여 명을 빼고는 전부 단란주점 하나를 완전 접수, 신필이를 자정 넘

어서야 끝났고, 어깨동무를 한 채 '친구여'를 합창한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뒷날(9일) 아침해장을 한 일행은 경부대항 족구시합을 했는데 서울팀이 석패했다.

족구를 하는 사이 옥유전의 그 유명한 도토리 나뭇잎 모자가 완성됐다. 이민영이 재빨리 1만 원에 샀고, 나중에 서울 올라오는 차 안에서 서상국의 기지로 '빌려주고 사진 한 장 찍어 메일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1천 원씩 받아 모두 1만9천 원을 모았는데, 이를 삼공산우회의 회비로 기탁했다고 한다.

족구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고 곤돌라를 타고 향적봉으로 올라갔다. 향적봉 대피소를 우측으로 내려다보며 길게 줄지어 백련사 코스로 하산했다.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던 친

구들은 내려만 오는 길인데도 째짤했다. 선두와의 시간 차이가 40분 정도였다.

3시간 만에 무사히 삼공리로 하산했다. 닭백숙 안주에 동동주 반주와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요기를 했다. 식당 앞 잔디밭에서 정담을 나누다 "후라 경고!"를 외치고는 부산 서울 대전 마산 울산 등지로 헤어졌다.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 제 17회 용마축제 한마당이 지난 10월27~29일 학예전시회와 학예발표회로 나눠 열렸다.

학예전시회(27~29일)는 △교과별 작품(사생대회·시화전·영어신문 만들기·지오피크로 만든 여러가지 모형 등) △개발작품(구슬공예반·종이접기반·풍선아트반·프라모델반·방송부) △교사·학부모 찬조작

경남중 용마축제

학예전시회·발표회 체육대회 등 성황

품 등을 선보였다.

또 학예발표회(29일)는 △제1부: 영남농악(사물놀이반)·힙합댄스(스포츠댄스반)·피노키오 등(오카리나반)·상주모심기 등(1학년 리코드합주)·기타반

연주·3-6반 합창·1학년 미술·교사 중창 △제2부: 가요제('편지' 등 5곡)·팝송대회('A whole new world' 등 4곡)·스포츠댄스(찬조 출연)·밴드부 합주 등으로 엮어졌다.

특히 행사 첫날인 27일 체육대회를 비롯해 28일 용마독서골든벨·애송시 낭송대회·포돌이홍보단 공연 등이 열려 결속력을 강화하고 정서함양을 고취시켰다.

'글마을'에의 초대



용마가족 여러분을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수기·확장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빛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보낼 곳>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O/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

미국 한인 최대 부동산 회사 NEW STAR

- ◆ 미국 내 부동산 투자 자문
- ◆ 미국 E-2 투자 이민 사업체 매매
- ◆ 주택·아파트·상업용 건물·상가 매매
- ◆ 투자용 빈 땅·투자개발 상담
- ◆ 골프장·호텔·리조트

NEW STAR REALTY & INVESTMENT



ERA NEW STAR REALTY & INVESTMENT
LA MAIN OFFICE 3030 W. 8th ST, LA, CA 90004
사무실 213-385-4989 / 핸드폰 213-215-6670
http://chobungrae.newstarrealty.com
e-mail: chobungrae@newstarrealty.com



조봉래(22회)
캘리포니아 부동산국
라이센스 NO. 01502963

제7회

김학민=10월27일 침례병원에서 별세

제8회

金東圭=10월3일 별세
金東勳=재경동기회 총무, 10월1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베들레헴관 3층에서 차녀 지홍양 결혼
金成浩=8월15일 별세
金世坤=(자택 이사)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15동 1306호
李正允=9월24일 부친 별세.
崔海君=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비치대루빌아파트 102동 503호. 051-742-0173

제9회

權鳳憲=10월16일 부산 하모니웨딩타운 3층에서 차녀 양희양 결혼
金聖鎬=8월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아들 영철군 결혼
金正明=6월5일 팔레스호텔에서 아들 경훈군 결혼
金鍾求=10월16일 부산 롯데호텔 2층에서 차남 성환군 결혼
吳德煥=8월19일 별세
李東植=7월24일 서울 롯데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차남 승현군 결혼
曹址鉉=(자택 이사)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07 은천아파트 103동 604호. 02-886-8062
崔鉉五=(자택 이사)경남 밀양시 내이동 708-4 영생아파트 4동 109호. 055-356-6738
洪淳大=7월24일 모친 별세
黃永善=9월21일부터 30일까지 미광화랑에서 서예초대전을 열

제10회

김용규=10월15일 서울 거구장별관에서 아들 종오군 결혼. 016-9314-0536
金喆熙=10월16일 부산 하모니웨딩장에서 아들 시윤군 결혼. 019-575-5289
朴野原=9월23일 지병으로 별세
林虎雄=10월15일 울산 문수컨벤션홀에서 딸 수현양 결혼. 010-6669-6347
全秉翼=10월8일 부산 목화예식장에서 아들 재형군 결혼. 011-562-0798

제30회

尹允秀=법무법인 울촌 변호사. 10월17일 별세
李泰鳳=기장누가병원. 051-724-6282
鄭採和=한라건설 집현-생비량국도화장공사 현장소장. 055-745-8726~7
韓商大=현대해상화재보험 부산지점장. 051-960-1510

제31회

김성철=동양제철화학 동력과. 016-606-4421

제32회

辛國善=선경산업 차장. (자택)대구시 달서구 장동 333-13. (직장)053-583-4948 · 010-3072-

제11회

金鮮沂=10월15일 차남 준국군 결혼. 055-386-2216 · 017-564-1588
崔得鎬=10월8일 차남 창균군 결혼. 055-367-1185 · 010-2210-7016
千同祚=10월9일 딸 혜경양 결혼. 055-362-1187

제13회

동기회사무실 이전
제13회동기회 사무실이 오는 11월2일(수요일)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40-25 남양빌딩 603호로 옮긴다(약도 참조). 이날 오후 6시 차영일 회장 주재로 자축연을 개최하는데,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朴健一=10월2일 부산 남태평양호텔에서 아들 결혼
安駿洙=10월16일 부산 허심청 2층 크리스탈홀에서 아들 결혼
鄭三永=11월4일 연세대학 동문회관에서 아들 결혼
曹東久=동구영상 회장. (FAX 변경)02-417-2628
崔永才=GM대우 부회장으로 승진
崔永煥=9월4일 부산 영빈관에서 딸 결혼
崔泰煥=11월6일 김해 목화예식장에서 딸 결혼

제14회

金東一=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9월5일 별세
金武男=10월13일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3층에서 차남 흥준군 결혼
朴龍華=9월24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장남 정배군 결혼
安相煥=(자택 이사)경남 밀양시

6338

제34회

姜瑛翼=대신상사 대표. 모친 별세. 011-858-5054
盧貞男=5월14일 해동병원에서 별세.
朴載燦=포항제철 과장. 4월14일 포항의료원에서 모친 별세. 011-823-0178
朴昌柱=5월16일 상해 양포고급중학 국제부 대표 임명. (Tel)86-1381-688-6957
韓奉秀=5월4일 경성대 앞 "까페 일리" 개업. 051-625-7933
姜瑛翼=대신상사 대표. 모친 별세. 011-858-5054
盧貞男=5월14일 해동병원에서 별세.
朴載燦=포항제철 과장. 4월14일



청도면 두곡리 253-2. 055-352-5925 · 019-256-5925
李喜一=7월26일 별세
曹正鉉=8월31일 (주)아가방 상임감사에 선임. 02-527-1339

제15회

金濟東=9월24일 부산 골든웨딩프라자에서 차남 도현군 결혼
蔣鍾浩=8월31일 모친 별세
韓海洙=9월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차녀 은진양 결혼
許斗榮=허두영내과의원 원장. 부산시 금정구 서1동 520-333

제16회

金仁國=가족실내영화관인 '씨네동지' 개업
朴相範=명동병원 원장. 8월13일 장남 형준군 결혼
宋圭政=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주)윈스틸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격 취임
安國正=엘리트어패럴 대표. 10월1일 장남 진홍군 결혼
梁聖旻=조광페인트(주) 대표이사 회장.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32 현대베네시티 103동 1801호
李武榮=10월9일 부산 황실웨딩홀에서 차녀 유리양 결혼
曹吉宇=부산광역시의회 의장. 2009년 IOC총회 및 Olympic총회 부산유치 범시민추진 위원장으로 선임
河奉義=(자택)울산시 중구 옥교동 257-7
許慶賴=(자택)경산시 옥곡동 829-1 부영아파트 205동 401호



포항의료원에서 모친 별세. 011-823-0178
朴昌柱=(재중) 5월16일 상해 양포고급중학 국제부 대표 임명. (Tel)86-1381-688-6957
裴鐘文=아시스 영업부 이사 승진
慎鎬珍=말레이시아항공 이사 영전
韓奉秀=5월4일 경성대 앞 "까페 일리" 개업. 051-625-7933

제35회

김태희=토속촌 개업. 부산광역시

제18회

金敬傑=동원 철강상사 대표. 051-757-2945
金思權=동기회장. 9월5일 32년간 봉직해 온 경찰공무원을 퇴직. "사하 미래 연구실" 개설. 051-291-7709
金永一=동은병원 원장. 055-384-7575
金正來=부산 영남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051-265-4336
柳鍾又=부경대 건축과 교수. 051-620-1396
徐且守=부경대 화공과 교수. 051-620-1563
李成一=(주)삼보산업 부회장. 011-9503-5530

제21회

金祖榮=춘해학원 재단이사장. 051-645-8971 · 011-599-4666
金鍾喆=10월11일 부친 별세. 010-9920-0574
朴一松=춘해대학 교수. 울산국립대학설립 범시민추진단 상임의장. 052-270-0392 · 011-578-2125
李小瓊=10월9일 장남 결혼. 051-338-3386 · 016-535-8248
鄭吉永=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105동 1006호. 051-758-3128 · 010-9611-3128
鄭秀勳=10월15일 차남 결혼. 018-341-7883
鄭永權=10월8일 미국 메릴랜드에서 장남 결혼. 011-251-7135
丁義昌="웅진생활용품" 대리점 개업. 051-645-2818 · 018-682-0018
崔昌熙=10월7일 장녀 결혼. 011-9008-9502
河在清=미국 플로리다 올랜드 거주. (Cell)407-312-3775 · (e-mail)jaycob@hotmail.com

제25회

金昌成=부산 대청동에 스타게티 점문점 "Tomatone" 개업. 051-245-0467

제28회

南時奎=철강의 코스코이의 부문 및 화학부문의 담당이사(본부장과 같은 개념) 수행
辛永洙=9월1일 이화여대 공대 학장으로 재선. 011-219-1610
安 豊=인쇄마당 대표. 8월29일 '인쇄마당' 창간 10주년 기념

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4-19번지. 051-809-3266 · 011-9557-9824
尹仁奎=윤인규이비인후과 원장. 7월28일 장모 별세. 017-585-6257
李喆熙=8월2일 장인 별세. 011-263-0272

제36회

朴龍七=샘안양병원 기획홍보팀장. 031-467-9727
조명규=(재미)트렌스에서 "철가방 짜장 짬뽕" 식당 개업

제38회

金炯奭=신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동기회장. 7월5일 별세.

제39회

식. 051-464-6626 · 017-558-8211
芮英一=쌍용자동차 동래영업소
吳正玩=9월10일 부산 백스코 2층 연회장에서 딸 지원양 결혼. 011-9339-8000
劉鳳秀=9월1일 울산세무소 세원관리2과장으로 승진
俞台濤=9월20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 본부장에서 본사 경영기획실장으로. 02-710-4021

제29회

朴相煥=울산시 남구 삼산동 삼산현대아파트 102동 209호. 011-9506-3994. (e-mail)bethel@dreamwiz.com
朴鎔秀=5월9일 제31회 영희연극상 수상자로 선정. 02-918-0356 · 011-410-0351
朴鍾浩=울현기술단 토목부 소장. (자택)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 303동 106호. (직장)02-407-0311 · 011-9025-3795
鄭相國="마산 · 창원 지역 동창회" 사무국장 취임. (직장)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223-7 대아빌딩 11층. 055-294-1419 · 017-570-4572
河萬燁=새소망 교회. 5월15일 부친 별세. 011-345-7564
韓基俊=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자택)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서한화성아파트 103동 501호. (직장)053-950-5557 · 011-813-2831

제30회

姜 錫=동국대학교 부속병원 교수. 부친 별세. 016-815-1196
具義本=구의본소아과. 부산시 남구 용호1동 176-30 LG메트로 시티 주상가 302호 051-612-2575
金在洙=(주)페스코 대표이사. 051-403-3145 · 011-588-3155
朴炳奎=박병규내과. 부산시 서구 아미동2가 165-4. 051-243-7357
朴水松=동양조선(주) 기술이사. 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578번지 산업빌딩 206호. 011-9399-4625
朴雄石=한마음산부인과 원장. 부산시 남구 용호3동 394-16. 051-626-8200
孫輔賢=(주)BL건설 전무이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381-6 도우빌딩 5층. 051-502-4200 · 019-517-2731

朴仁奭=알파신경외과의원 원장. 9월24일 병원 개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86 성영메디칼 4~6층. 051-807-0114
李京鎬=산자부 생활산업국 디지털 전자산업과 서기관. 02-2110-5672
崔熙元=농협중앙회 정부과천청사지점 공제유통팀장. 02-503-7761

제41회

金泰俊=삼성치과 원장. 7월15일 장모 별세
李英喆=이만희 작 『풍인』연출. 7월21~9월4일 서울 대학로 아르구지소극장에서 공연

제43회

金志元=(재미)7월4일 별세.

질어가는 가을... 낭만 · 사랑 · 추억 심는 아우회 러시

단풍물결이 산하를 누비는 가을. 질어가는 추색에 젖어 동기회들이 아우회를 즐기며 우정과 결속을 확인했다. 제8회는 경북 영주의 부석사에서, 제13회는 경주 근교 산내면에서, 제18회는 경남 삼량진 근교 구만산과 밤나무골에서 각각 견문을 넓히고 낭만과 추억을 कै냈다. (편집자)

부석사 절골서 부부 45명 장기쇼

제8회동기회

제8회는 지난 10월28일 경북 영주시 근교 부석사 절골에서 부부동반 가을아우회를 펼쳤다. 문 국 회장이 인솔한 이날 아우회는 동문 35명과 부인 10명 등 모두 45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 부산진역 앞에서 관광버스편으로 출발, 경부고속도로 서대구 IC~중앙고속도로 영국IC를 거쳐 12시40분 부석사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어 부석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와 역사 탐방에 나섰다.

배어난 산세와 불교문화의 심오함이 아우러진 부석사를 둘러본 후 일행은 절골의 부석가든에서 오찬을 겸한 단합회를 열었다. 문 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즐거운 인생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며 "평소의 실력으로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노익장을 재충전하자"고 말했다. 우정의 축배에 이어진 정담과 격려의 술잔이 오갔고 노래자랑 · 장기자랑은 2시간 동안 율어졌다. 일행은 오후 4시30분 귀가길에 올랐다.

제7회 회장 이상주 선임

제7회동기회는 지난 10월8일 오후 4시 서면집(민물장어구이 전문집)에서 05년 정기총회를 개최, 이상주 동문(부산시 시우회 · 보건회 고문)을 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동기회는 박두만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잔여임기를 김광욱 총무가 대행해왔다. 동문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결산 ·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을 뽑고 김명관 · 김명환 동문을 각각 감사로 선임했으며 김광욱 총무를 유임시켰다.

후 1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려 A조에서는 우승 최득호 · 준우승 김재덕, B조에서는 우승 이명 · 준우승 박옥식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명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국에는 30여 명이 출전, 열기가

독한 수담을 즐겼다. 특히 시상식에 이은 단합회식 때는 김병기 고문(본부 자문위원)이 40여만 원의 회식비 전액을, 서울에서 김인호 동문이 특찬금 20만 원을 각각 쾌척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제13회 동문들이 경북 경주 산내면에서 통돼지 바베큐와 민물고기 매운탕 등으로 가을 아우회를 즐긴 후 기념촬영을 했다.

쌍석회 9월우승 최득호 · 이명

김병기 회식비 전액부담 김인호 20만원 특별찬조

쌍석회(제11회 바둑모임) 제2차 정례대회가 지난 9월23일 오

통돼지 바베큐 · 민물고기 매운탕 '천하일품'

제13회동기회

제13회동기회 가을아우회가 지

난 9월25일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별장가든(우영섭 동문 운영)에서 차영일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일행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진역 앞에서 최영재 동문(GM대우 부회장)이 협찬한 버스편으로 출발했다.

단합회의 식단은 우 동문 부부가 정성을 쏟아 마련했다. 손수 재배한 무공해 채소들과 들큰하면서 매운 맛이 감도는 토종꽃고추, 갖가지 산나물, 무말랭이장아찌, 청방배추김치, 아삭아삭한 총각무김치, 더덕동동주, 통돼지 바베큐, 민물고기매운탕 등이 한데 어울려 맛잔치를 벌였다.

권주가가 절로 터지고 술잔이 오갔다. 우정이 질어졌다.

일행은 단합회 마무리단계에서 2005년 부산시문화상 후보에 오른 차 회장이 꼭 수상자로 선정되기를 기원하는 축배를 들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차 회장과 이철세 동문이 금일봉을 특찬했다.



산행 겸 아우회에 참석한 제18회 동문들이 경남 삼량진 근교 구만산에 오른 후 폭포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구만산 오르고 한우등심 · LA갈비로 잔치

제18회동기회

제18회동기회는 지난 9월25일 구만산 등산 겸 가을아우회를 열었다.

김사권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동문 · 가족 53명이 참석, 폭포와 단풍물결을 자랑하는 경남 삼량진 근교 구만산에 오른 후 밤나무골 야영장에서 단합회를 즐겼다. 이날 커플은 김 회장과 김길제 고문 부부를 비롯해 16쌍, 홀아비(?)는 21명이었다.

일행은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앞 한양프라자 승터에서 김길제 고문이 협찬한 MSC대형 버스 2대를 나눠 타고 출발, 구만산 들머리에 도착한 후 산행을 실시했다.

낙오자 없이 무사히 하산한 일행은 밤나무골 야영장에서 한우등심과 LA갈비, 구수한 된장국 등으로 포식(?)을 했고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회포를 풀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하두석 동문이 기념타월 100장을 특찬했다.



하산길의 용마산악회 회원들이 폭포 앞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폭음을 즐겼다.

22차 산행 내연산 90여명 등정 본부 용마산악회

본부 용마산악회 제22차 정기산행(올해 세 번째)이 지난 9월 11일 경북 포항시 근교 내연산(710m)에서 펼쳐졌다.

정준수 회장(15회)의 리더에 따른 동문 · 가족 90여 명은 산행 들머리인 보경사 매표소를 출발

한 후 문수암(점심식사)~내연산 정상~폭포~매표소 도착(16:00)으로 산행을 마무리했다.

일행은 보경사 경내 탐승~온천욕~저녁식사 끝에 귀가길에 올랐다.

축

인간 프로테오믹스 프로젝트 총책임자 발탁

(Human Neural Stem Cell Proteome Project)

이봉희 용마 세계를 품다

당신은 한국인의 자존심은 물론 모교 · 동창회 · 국내외 용마가족의 명예를 선양하셨습니다.

제32회동기회

△고문 이병준 (삼성안과의원장) · 김대식 (동서대 학생처장) △회장 김태홍 (한림학원 원장)
△전동기 (물운대성당 신부) 등 동기생 일동